나라가 잘못되는 원인은
지도자에게 있다

치란治亂[1]은 임금에게 달려있다

저는 들었습니다. 천하의 일에는 근본이 있고 말단이 있는데, 그 근본을 다스리면 말단은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고, 근본을 뒤로 미루고 말단을 먼저 하면 고생만 하고 이익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은 한 나라의 근본이니 나라가 다스려지거나 혼란해지는 것이 임금에게 달려 있습니다. 임금이 다스리는 방법을 아는데 나라가 다스려질 수 없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치입니다. 오늘날 인심과 세상의 도의(道義)[2]가 하나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전하의 정치와 교화(敎化)[3]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정치와 교화는 임금의 마음과 관계있으니, 전하께서 하시는 자신을 반성하는

1 치란(治亂): 나라가 잘 다스려지거나 혼란한 것
2 도의(道義):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덕상의 의리
3 교화(敎化): 가르치고 이끌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

학문과 성의(誠意)[4]와 정심(正心)[5]의 공부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하께서는 그 또한 근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 전하의 영특한 자질과 슬기로운 바탕이 남보다 뛰어나서, 이미 한 시대를 구할 만한 재능을 가지시고 임금과 스승이 되시어 한 나라에 임하시었고 또 치세(治世)[6]의 형세가 있는데도, 오늘날까지 진실한 덕을 이루지 못하시고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해설

이 상소는 선생의 나이 43세 되는 해 1578년(선조11) 6월 8일에 경기도 파주(坡州)에서 올렸다. 선조가 글을 올리라는 유지(有旨)에 응하여 시사(時事)를 논하여 올린 상소이다. 원래의 명칭은 「응지논사소(應旨論事疏)」이다. 『율곡전서』 제6권에 실려 있다.

이 상소를 쓰기 전에 자연적 재앙과 이변이 있어 대책을 구하는 유지를 내려 보냈던 것 같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에 의해 자연적 재해와 변고는 임금의 덕과 관계되는 것으로

4 성의(誠意):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으로 『대학』의 팔조목 가운데 하나
5 정심(正心):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대학』의 팔조목 가운데 하나
6 치세(治世): 잘 다스려져 태평한 세상

믿었기 때문이다.

문장이 길어 서두를 생략했는데 거기서 선생은 자신이 속마음을 다 털어놓아 선조의 심기(心氣)를 거슬려 노여움을 사게 된다하더라도 다 말할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

글의 요지는 지금 나라의 형편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 책임이 임금에게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 데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우리는 흔히 왕조시대 군주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물론 그런 왕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왕은 독재를 하였기 때문에 폭군이라는 소리를 듣고 쫓겨나거나 몰락의 길을 걸었다. 조선시대 연산군이나 하나라 걸왕과 은나라 주왕이 그런 왕이다. 다수의 군주는 비록 왕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그것은 선생처럼 왕의 책임을 묻거나 또는 왕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비판하는 신하들이 있고, 더구나 천재지변이나 기상적인 이변이 있을 때는 거침없이 이런 종류의 상소를 올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왕의 잘못을 간(諫)하거나 관리들의 비리를 고발하여 탄핵하는 관청까지 두었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통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임금 못지않게 신하들의 책임도 컸던 것이다.

이 부분은 선생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 책임이 왕에게 있다고 보는 상소문의 첫머리로서,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한문 원전 음미하기

天下之事에는 有本有末하니라.
천 하 지 사 유 본 유 말

人君은 是一國之本이라.
인 군 시 일 국 지 본

» 어휘 풀이

天下之事: 천하의 일 또는 한 나라의 일/有: ~을 가지고 있다/本: 근본/末: 말단/人君: 임금/是: ~이다/一國: 한 나라

» 문장 구조

1. 각각 독립된 두 문장이다.
2. 첫 번째 문장은 주어+동사+목적어의 영어 3형식 문장과 유사하다. 원래의 형태는 '天下之事有本, 天下之事有末'이지만 天下之事가 반복되므로 생략하여 '天下之事, 有本有末'이 되었다. 여기서 有는 have 동사처럼 ~을 가지고 있다는 소유를 나타내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천하의 일이 근본과 말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어색하므로 보통 '천하의 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다.'고 해석한다.
3. 天下之事에서 之는 天下라는 말이 事를 꾸며주거나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관형격조사라 부른다. 그래서 天下之事는 之가 들어가 명사구가 되므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有本有末은 타동사+목적어가 반복되어 있는데, 보통 有本末로 나타내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강조된다.
4. 두 번째 문장은 주어+동사+보어의 2형식 형태이다. 이 때 주어는 人君, 동사는 是, 一國之本이 보어이다. 是는 여러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영어 be동사처럼 '~이다'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런 용법은 현대 중국어에 가깝다. 보통 한문에서는 是보다 也를 많이 쓴다. 따라서 '人君一國之本也'라고 많이 표현한다.

5. 一國之本에서 之는 一國라는 말이 本를 꾸며주거나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앞서 天下之事의 용례처럼 관형격조사라 부른다. 그래서 一國之本은 之가 들어가 명사구가 되므로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 해석

천하의 일에는 근본이 있고 말단이 있다. 임금은 한 나라의 근본이다.